



3면

특자도 출범 도민 의식조사 관련 토론회

2023년 6월 28일 수요일(음 5월 11일) 제3293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제로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27일 기준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 부지(덕진구 장동 531-8번지)에서 우병기 전주시장과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국회의원, 전주시의회 의원, 체육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을 위한 착공식이 열렸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는 모습이다.

## 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첫 삽'

전주 월드컵경기장 부지서 착공식... 2025년 11월까지 1421억 투입

기준 종합경기장 부지 마이스산업 집적단지 조성 계획 실행 가능해져

전주시가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짓는 사업의 첫 삽을 뗐다. (관련기사 5면)

시는 27일 기준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 부지(덕진구 장동 531-8번지)에서 우병기 전주시장과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국회의원, 전주시의회 의원, 체육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립사업 추진 경

과보고와 공사개요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기념행사(시삽)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 부지에는 오는 2025년 말까지 국비 180억 원 등 총사업비 1421억 원이 투입돼 1층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육상경기장 부지개발의 선결 조건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이 건립이 본격화되면 기존 종합경기장 부지를 마이스산업 집적단지로 조성해서 전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전주시의

계획 실행이 가능하게 됐다. 마이스산업단지 회의장, 호텔, 쇼핑 등의 집합단지를 뜻한다.

동시에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는 기존 국제 규모의 축구장에 이어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드론스포츠복합센터 등을 두루 갖춘 종합스포츠센터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당당했던 전년 전주의 위상과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지킬 것을 지키고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면서 전주가 살기 좋은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갈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육상경기장은 지하 1층~지상

3층에 연면적 8079㎡, 관람석 1만82석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야구장은 지하 1층~지상 2층에 연면적 7066㎡, 관람석 8,176석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우병기 전주시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가 기존 국제 규모의 축구장에 이어 1층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드론스포츠복합센터 등을 두루 갖춘 종합스포츠센터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당당했던 전년 전주의 위상과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지킬 것을 지키고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면서 전주가 살기 좋은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갈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기자

##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조달계약, 두 차례 유찰 후 재공고”

도교육청, “안정적인 절차 추진 통해 학생들에 최상의 조건 갖춘 기기 지급 주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사업’ 조달계약에 대해 3번째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본보 6월 27일자 1면〉에는 조달청이 이날 두 번째 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단일업체 응찰로 조달계약이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자 지난달 11일 입찰 공

고를 냈으나 단일업체 응찰로 유찰되자 이달 14일 재공고를 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학생 교육

용 스마트기기 지급은 학생들이 디지털 신기술을 도구로 활용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유찰자를 서두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들에게 다양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기기를 지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 | 기부방법 |

· 대면납부 : 농협은행 방문신청(전국 농축협 어디나 가능, 단위농협 포함)

    신분증 지참 ➤ 기탁서 작성 ➤ 기부(현금 또는 카드) ➤ 답례품 선택 및 배송

· 인터넷 납부(고향사랑e음 ilovegoohyang.go.kr)

    기부자 인증 (가주지 · 한도 확인) ➤ 기부금 결제 (계좌이체 · 신용카드 등) ➤ 답례품 선택 (기부액의 30%) ➤ 답례품 배송 (배송지 선택, 배송내역 조회)

#### | 기부자 혜택 |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순창고추장, 장내미생물검사키트, 벌초대행서비스 이용권 등

#### | 기부금 사용처 |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사업에 사용

| 기부문의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 063)650-1592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순창군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전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



‘도지사와 함께가는 정책소풍’이 27일 부안청년UP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부안군 청년농업인들이 김관영 도지사와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

## ‘청년 농UP! 소득 UP!’

전북도 ‘도지사와 함께가는 정책소풍’ 부안서 개최

청년농 우수사례 발표 · 아이디어 보물찾기 등 진행

김관영 도지사는 민선8기 정책 보물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주민들을 만나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위한 해법 찾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도지사와 함께가는 정책소풍’을 지난해 잠수군, 김제시에 이어 올해 첫 번째로 부안 청년UP센터에서 ‘부안 청년 농UP! 소득UP!’을 주제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책소풍(Saw-Woo)’은 작년 9월 텁별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에서 최종 선정된 것으로 도지사가 시군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Saw), 도민과 함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즐겁게(saw fun), 새 변화의 바람(Wind)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책소풍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권익현 부인군수는 김정기·김슬지 도의원,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 부안군 청년농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먼저, 청년UP센터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 부안 청년농업인을 소개하는 홍보 전시물 등을 둘러보고 청년농 우수사례 발표, 질의답변 등 정책소풍의 핵심인 ‘아이디어 보물찾기’가 진행됐다.

이날 정책 대회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은 청년농업인 대상 새만금 농업용지 활용방안, 청년농업인 입

대농지 부족 해결방안, 지역농산물 판매유동망 확대방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확대 시행방안, 신작증 작물 개발·보급에 대한 논의 등 청년농업인들이 실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도지사와 열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권익현 부인군수는 “군 우수의 청년농업인이 자유롭게 농업정책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 김관영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안군 농업의 발전과 미래유망한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비전을 선포하고 8대 전략 중 첫 번째로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을 제시했다. 이는 전북에서는 농업이 미래이며 청년농업인이 중심이라 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며, “청년 농UP! 소득 UP!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농업인의 소득증상이 가능하도록 도와 군이 함께 협력·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장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고, 도지사와 도민 간 정책 소통채널로서 ‘정책소풍’을 시군과 함께 개최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부안=김석진기자